

“보편적 지급” vs “선택적 지급”

제주형 재난지원금 대상 놓고 원 지사 최종선택 주목
 의회 “제2차 지원금은 전 도민으로 확대해야” 촉구
 도 “현재 예산부족 상황… 1차 지원금 결과 분석할 것”

정지권 안팎에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특히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앞둔 시점에서 원 지사가 지급 대상을 확대할지, 기존 지급 방식을 고수할 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오영희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양 당 대표는 “현재 1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결과 약 150억원의 불응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지원금 신청에서 6000건에 가까운

이의 신청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지금의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같은 날 정의당 제주도당도 전 도민에게 지급될 때까지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며 압박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은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으로 예산편성권이 없는 도의회로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최상의 결정으로 적극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추경 예산안 의결 직후 인사말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1차 지급 때와는 달리 전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참석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주도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지급 대상의 전 도민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만 6000여건에 달하는 등 아직 예산이 얼마나 남을지 모른다”며 “자연재해를 대비한 예산을 미리 쓴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대비해 다시 적립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도는 “1차 재난지원금 결과를 분석하는 합동평가회를 6월 중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지급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농번기 화물차 적재함 이동 ‘위험’ 최근 농번기를 맞아 도내 농촌이 발일 등으로 분주한 가운데 23일 제주시 한경면 한 도로에서 농민들이 차량 화물적재함에 탄 채 위험스럽게 이동하고 있다.

물팡·물허벅 유산 용천수 시멘트 걷어낸다

도, 올해 6개 용천수 친환경적으로 정비… 인위적 시설물 등 철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용천수 6곳에 대해 친환경적 정비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가 올해 친환경 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용천수는 ▷안갯물(조천읍 신촌리) ▷바를물(한림읍 웅포리) ▷채기물(서귀포 예래동) ▷새물(애월읍 중엄리) ▷절물(애월읍 광령1리) ▷하물(애월읍 애월리) 등이다.

올해 정비사업은 인위적인 시설물

을 비롯해 과도한 시멘트 시설 철거 등 자연성 유지를 위한 정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총 사업비 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정비사업은 6월 중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발주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을단위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지하수·인문·경관·환경단체·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관리의지가 있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친환경적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며 “물팡·물허벅 등 제주의 생활문화를 만들어 낸 용천수를 보전하고 역사적 가치를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마을에서도 용천수 주변 정비, 퇴적물 청소 등 자발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형 재난지원금 1차 12만여세대 수혜

22일까지 총 401억 지급
 29일까지 이의신청 운영

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결과 지급 대상이 도내 12만3283세대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5월 22일까지 33일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접수한

결과 총 12만9811세대가 지원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신청 기준을 충족한 12만3283세대에 대해 40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95%의 처리율을 보였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거주 8만6184세대에 283억원이, 서귀포시 거주 3만7099세대에 118억원이 각각 지급결정 됐다.

다만 나머지 5419세대에 대해 이

의신청, 서류미비 등에 따른 보완심사가 진행중이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되는만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액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의신청은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접수 가능하다.

한편 도는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된 재난·재해 구호기금 중 남아있는 잔액은 여름철 태풍, 가을철 가뭄 등 앞으로의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위한 사용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은지기자

제주시, 자립 베스트마을 3곳 선정

소길·중엄·함덕리 정비

제주시가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주민 화합과 지속가능한 마을 발전을 위해 자립 베스트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으로 애월읍 소길리·중엄리, 조천읍 함덕리 3곳을 선정했다.

시는 올해 자립 베스트마을 만

들기 공모사업에 응모한 7곳 마을을 심사해 3곳을 선정, 총 2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소길리에서 아름다운 마을안길 조성을 위한 물담정비, 중엄리에서 유흥시설물을 활용해 다목적공간 제공을 위한 정비공사, 함덕리 도로변 주변 쉼터

공간에 가로수를 식재하게 된다. 시는 이들 3개 마을사업의 지방보조금 심의가 완료돼 보조금을 교부하고, 오는 11월까지 자립 베스트마을 만들기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립 베스트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마을환경 개선과 유흥공간 활용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도,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계획에 도민의견 반영할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정부가 확정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등 최근 제주지역의 여건변화 등과 연계한 ‘2040 제주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원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토록 한 기본계획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원녹지의 보전·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 및 공원·녹지 현황조사, 인문환경조사

와 주민의식조사 등을 수행하고 종합분석이 이뤄진다.

공원·녹지의 확장 가능성 검토와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수립, 제주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연구용역기간은 6월 중 선정되며, 용역기간은 18개월이다. 용역 수행기간 중 전문가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및 도의회 보고, 의견청취 등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주민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해 쾌적한 녹지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공원은 244개소·991만1000㎡, 녹지는 133개소·60만㎡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시 “가설 건축물도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제주시는 농막이나 공사현장사무소, 간이작업장 등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지 않은 기간 1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설건축물을 최초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해 사용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 수리일이 취득일이 되고, 1년 이내로 사용하다가 기간을 연장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취득세로 280건에 1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4월까지 107건에 1300만원을 부과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찾아가는 금연상담서비스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라면 어디든 찾아가 상담해드립니다!

■대 상 : 여성, 청소년, 대학생, 장애인, 사업장 근로자

■제주 전 지역 방문 상담

■등록 후 6개월간 1:1 맞춤형 상담과 보조제 무료 제공

■금연 포상금 제공

■신 청 : 758-9030, 010-8814-9030(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카카오톡 : jejutcc

올해는 꼭!

20년 20년

4박5일 무료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참가자 모집

□ 대 상

-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 2회 이상의 금연 실패 경험자
 - 흡연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 진단 후 흡연 지속자

□ 날 짜

2020년 5월 20일~24일, 6월 10일~14일, 7월 1일~5일, 7월 22일~26일, 8월 19일~23일

*상기일정은 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시모집입니다.

□ 캠프특전

- 흡연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건강검진(폐CT 포함)
 - 금연약물요법(니코틴패치, 껌, 경구용 약물 등) 제공
 - 생활안락, 세면도구 등 개인용품 제공
 - 전문적 금연치료와 유지를 위한 집중심리상담 제공
 - 금연 후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제주시 서광로 175 아세아빌딩 5층 제주금연지원센터

- 전 화: 064-758-9030/ 010-3068-9030

* 회기당 선착순 10명 제한입니다.

* 접수 시 본인부담금이 있으나 캠프 수료 후 전액 반환됩니다.

일 정 표 (예)								
요일/시간	1일차(수)	2일차(목)	3일차(금)	4일차(토)	5일차(일)			
08:00~08:30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조식/ 바이탈 체크/	조식/ 바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조식/ 바이탈 체크/ 전문의회진	조식 / 바이탈 체크			
08:30~09:30		전문 의 상담 및 약 처방		금연마음챙기기 (집단상담) Ⅳ		사후 관리 안내 및 개별 내소 예약 상담, 보조제처방		
09:30~10:00		담배가 주는 많은 것들						
10:00~10:30					나의 몸을 건강하게		전문 의 상담 (검진결과상담)	
10:30~11:00								
11:00~11:30		건강검진 & 심리평가	금연에도 약이 있나요?	요가명상/ 세로토닌 워킹/ 힐링테라피	중식 및 휴식	수료식		
11:30~12:00			중식 및 휴식					
12:00~14:00			나의 체력 알아보기					
14:00~14:30	휴식							
14:30~15:00								
15:00~15:30	임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맛있는 금연 생활	스트레스관리	휴식				
15:30~16:00	폐CT촬영 (한국병원)							
16:00~16:30	금연을 한다는 것	휴식	금연마음챙기기 (집단상담) Ⅰ	금연마음챙기기 (집단상담) Ⅱ	금연마음챙기기 (집단상담) Ⅲ			
16:30~17:30	금연을 한다는 것							
17:30~18:30	석식 및 휴식	석식 및 휴식	석식 및 휴식	석식 및 휴식	제주금연 지원센터			
18:30~20:00	금연마음챙기기 (집단상담) Ⅰ	금연마음챙기기 (집단상담) Ⅱ	금연마음챙기기 (집단상담) Ⅲ	나의 새로운 삶 유연하기				
20:00~	개인 휴식 및 취침							

* 프로그램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연카드 무료신청
QR코드

담배 끊는 확실한 방법



보건복지부 · 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제주금연지원센터

☎ 758-9030